1697년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 연구

-崔錫鼎 · 宋相琦 · 崔奎瑞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묘정*

|| 차례 ||

- I. 머리말
- II. 1697년 연행의 몇 가지 특징
- III.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 양상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1697년 연행에 임했던 崔錫鼎, 宋相琦, 崔奎瑞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을 조명하고자 한 시도의 일환이다. 그에 따라 선차적으로 1697년 연행의 몇 가지 특징을 살피고, 三使의 작품을 개관해 次韻詩와 聯句詩 형식이 여타 연행록에 비해 양적으로 비중이 높음을 밝혔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 양상은 두 가지 면모를 보인다. 첫 번째는 공간 담론의 공유 양상으로 三使의 次韻詩에서 특히 이 같은 면모가 포착된다. 연행은 동일 공간 공유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더욱 적극적인 대화가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양과 산해관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이들의 작품을 통해 교류 양상을 조망하였다. 두 번째는 주제의 유기적 운용을 통한 담론의 소통 양상이다. 百韻聯句詩가 주제의 운용 측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개별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연행시의 담론 공유 양태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17세기 연행록이 가지는 특징을 추출해 의미를 논의하였다.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제어: 연행, 연행시, 최석정, 송상기, 최규서, 교류성

I. 머리말

이 글은 1697년 당시 연행에 임했던 최석정의 『明谷集』, 송상기의 『玉吾齋集』, 최규서의 『良齋集』 수록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 양상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행록 연구는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토대로 신자료 발굴·소개에서 개별 작가의 연행록 양상 규명으로까지 이어져왔다. 축적된 개별 연구들을 묶어본다면 시기를 아우르는 통시적인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행록은 해외 체험이라는 상동성을 지니므로 내용적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제외하고는 거의 천편일률적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텍스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일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행시 같은 경우에는 일록 형식보다 편록 측면에서 정보가 적게 담길 수 밖에 없고, 작가의 개성이 표면적으로 크게 돌출되지 않기에 내용적 측면에서 여타 연행록과 다른 독창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에 따라 기존 연행시 연구는 시라는 형식적 측면에 얽매어 분석되고 개인 창작물 관점에서 한정적으로 연구되어 왔다.¹⁾ 이러한

1) 엄경흠, 『한국 사행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호정, 『삼탄 이승소의 한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전수연, 『양촌 권근의 객관적 유심주의와 시세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전재강, 『熱河日記 所載 挿入詩의 性格과 機能』, 『동방한문학』 제8권, 1992; 임기중, 『朝天錄과 燕行錄의 和答詩』, 『국어국문학』 119집, 1997; 김현미, 『간이 최립의 사행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우훈, 『燕行長詩 <續北征>의 序·跋의 내용과 그 검토』, 『어문연

형태의 연구는 시를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여행시는 여행 기록 중에서도 대명·대청 의식이라는 내용의 상동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장르다. 따라서 필자는 1697년 여행에서 포착되는 특징들이 여행시 연구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리라 기대하며 글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제 여행시 연구는 순수 내용 분석에서 탈피해 형식적 특징에서 파생된 의미망을 밝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지속했을 때 새로운 논의로 확장되고, 나아가 여행록의 획일적 연구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바이다. 그 밖에도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최석정과 최규서의 여행은 학계에서 연구된 바 없고, 송상기 역시 시세계만 간략히 연구되었을 뿐²⁾ 여행시의 교류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첫 연구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2장에서는 1697년 여행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 면모를

구』 34집, 2000; 금지아, 朝鮮 申緯의 奏請行卷 研究, 『연행록연구총서』 5, 2002; 이종목,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제7집, 2002; 이권재, 『霧峯의 使行詩에 드러난 意識世界』, 『한국고시기문화연구』 9집, 2002; 엄경홍, 『鄭夢周와 權近의 使行詩에 表現된 國際關係』, 『한국중세사연구』 16호, 2004; 이희목, 『영재의 북유시초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13집, 2005; 김동준, 『〈續北征詩〉, 李時秀가 詩로 쓴 燕行紀』, 『서지학보』 25, 2006; 이혜순, 『姜瑋의 燕行詩 小考』, 『연행록연구총서』 1, 2006; 박경은, 『敬亭 李民歲의 詩文學』, 『연행록연구총서』 1, 2006; 주경열, 權近의 使行詩 研究, 『연행록연구총서』 1, 2006; 이종건, 『白沙의 戊戌朝天錄 소고 여행시』, 『연행록연구총서』 2, 2006; 강혜선, 『法古創新과 朴趾源의 燕行詩』, 『연행록연구총서』 2, 2006; 지영재, 『익재 여행시(1320년) 연구』, 『연행록연구총서』 권 5, 2006; 김종진, 『鄭元容의 ≪燕槎錄(詩)≫ 小考』, 『연행록연구총서』 5, 2006; 김원준, 『芝峯 使行詩의 一考察』, 『韓民族語文學』 42집, 2006; 이춘희, 『여행 노정에 관한 시와 여행시리의 변화 고찰』, 『한국어문학연구』 제50집, 2008.

2) 김경수, 『玉吾齋 송상기의 생애와 현실인식』, 『韓國史學史學報』 25집, 2012; 이항배, 『玉吾齋 宋相琦의 漢詩世界』, 『한국언어문학』 82집, 2012; 정만호, 『宋相琦의 生涯와 意識世界』, 『語文研究』 71집, 2012.

살펴보고자 한다. 연행 구성 인물과 목적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三使가 남긴 연행 기록인 연행시의 형식적 특징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을 밝히고자 한다. 최석정, 송상기, 최규서의 연행시를 살펴보면, 차운시와 백운시가 거의 작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형식적·내용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3장 1절에서는 차운시에 드러난 공간적 경험 공유 양상을 조망하고, 3장 2절에서는 백운시에 드러난 주제의 유기적 운용 및 담론의 소통 양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II. 1697년 연행의 몇 가지 특징

1697년 연행에 대해 연구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이 장에서는 1697년 연행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행 구성 인물과 연행 임무를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三使가 남긴 연행시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697년 연행을 개관해보면 正使 崔錫鼎(1646~1715), 書狀官 宋相琦(1657~1723), 副使 崔奎瑞(1650~1735)로 구성되었으며, 王世子冊封奏請使로 왕세자 책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696년 11월 왕세자 책봉 주청이라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奏請使兼冬至使 正使 徐文重(1634~1709), 副使 李東郁(1646~1708), 書狀官 金弘楨 등이 연행 길에 올랐으나³⁾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官爵에서 삭탈된 바 있다.⁴⁾ 조정에서는 1697년 연행이 중요 사안인 동시에 동일

3) 『肅宗實錄』 30권, 「숙종 22년 11월 2일 을묘 1번째 기사」, “奏請兼冬至使徐文重, 李東郁, 金弘楨等, 以世子冊封奏請事, 如清國.”

목적으로 재차 파견된 만큼 연행단을 선발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비한 것으로 보인다.⁵⁾ 그에 따라 재차 선발된 이도 임무 완수에 대한 부담감이 막중했다.⁶⁾

우선 1차 1696년 연행단의 주청 사안이 거부당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청나라가 『會典』을 인용해 왕과妃가 50세가 되고서도嫡子가 없으면 그때庶長子를 세워王世子를 삼는 것이 옳다고⁷⁾ 주장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청나라는 1697년 2차 연행단을 대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견해를 견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석정이 세자 책봉을 주청하던 당시 상황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옥을 닦는 정성 간절할 뿐	拭玉誠徒切
금을 바치는 계획은 사정에 어둡구나	捐金計亦迂
은미한 말로 간절한 정성을 쏟아내니	微辭瀝危懇
논박하는 의론이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네 ⁸⁾	駁議踵前誣

4) 『肅宗實錄』 31권, 『숙종 23년 3월 11일 입술 2번째 기사』, “上下備忘記曰: …(중략)… 正使徐文重, 副使李東郁, 書狀官金弘楨竝削奪官爵, 門外黜送, 奏請使以大臣, 卽爲擬入, 以爲趁開月拜表之地.”

5) 『玉吾齋集』 18권, 『附錄』, <謚狀>. “丁丑, 以舍人差奏請使書狀官赴燕. 時景廟在東宮, 前使徐文重等, 以封事未準纔得罪, 公之應下价, 出於極擇.”

6) 『明谷集』 15권, 『疏筭』, <辭右議政疏 再疏>, “且國家使事未完, 專對之命, 猥及於臣, 固當不擇夷險, 死生以之.”

7) 『肅宗實錄』 31권, 『숙종 23년 3월 11일 입술 2번째 기사』, “上下備忘記曰, 卽見奏請使狀啓, 禮部咨文謄本, 所幹之事不得准請, 實是萬萬意慮之所不到, 不覺驚惋也. 彼人所引『會典』, 王與妃五十無嫡子, 始立庶長子爲王世子等語, 極其無理無據. 爲使臣者, 所當碎首以死力爭, 而不此之爲, 數次爭執, 仍爲回程. 今若更遣使臣不許, 則又將如此而歸而已耶? 其辱君父甚矣.”

8)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1~2구는 최석정이 임금의 명을 받고 사신의 임무를 다하는 정성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나라에 주청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언급한 것이다. 3구에서는 최석정을 비롯해 사신들이 세자 책봉을 위해 정성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구는 앞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奏請使兼冬至使의 상황을 드러낸 동시에 이번 사신 임무의 어려움을 표출한 것이다. 청나라 예부에서 1696년에 『會典』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으로 계를 올리지 못하게 했는데, 이전과 같이 글의 제목을 논박했다는⁹⁾ 내용을 통해 왕세자 책봉 주청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랑캐 땅 다니기 부끄럽지만	蠻貊行雖愧
우둔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있구나	豚魚信可孚
길일 아침에 기쁜 소식 들으니	穀朝仍好語
가마꾼들도 환호하네 ¹⁰⁾	輿卒亦歡呼

온갖 고초 끝에 청나라가 요청한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송상기의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구는 송상기의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다. 동물도 사람의 신의가 간절하면 통함을 말하여 현재 상황을 비유적으로 제시했다. 3~4구는 청나라가 왕세자 책봉을 허락하게 되자 연행에 동행한 이들이 모두 환호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 밖에도 최석정이 왕세자 책봉을 통해 임금의 근심이 풀렸으며, 신하로써 죄도 면하게 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¹¹⁾

다음으로 三使인 최석정, 송상기, 최규서가 남긴 연행시를 개괄해 보는

9) 『玉吾齋集』 2권, <北征聯句百韻>, “禮部會誤引會典防啓. 今又仍前駁題.”

10) 『玉吾齋集』 2권, <北征聯句百韻>, 24번째 수.

11)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喜氣傾樽淥, 秋聲隕井梧. 主憂紓可矣, 臣罪免知夫.”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正使 최석정의 이번 여행은 2번째로¹²⁾ 여행시 70제 135수가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1번째 여행은 1686년 1월부터 3월 25일까지 총 41일이었으며, 陳奏兼謝恩副使로 上使 鄭載嵩(1632~1692), 書狀官 李塾과 동행해 『椒餘錄』을 남겼다. 첫 여행에 임했던 書狀官 송상기의 여행시 70제 134수는 『玉吾齋集』에 담겨있고, 副使 최규서의 여행시 45제 46수는 『良齋集』에 보인다.

三使	여행시 수록 문집	형식	수량
正使 최석정	『明谷集』, 『蔗回錄』	한시 형식	70제 135수
書狀官 송상기	『玉吾齋集』	한시 형식	70제 134수
副使 최규서	『良齋集』	한시 형식	45제 46수

표2. 三使의 1697년 여행록 현황

三使 여행시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최석정, 송상기, 최규서의 운자 활용 양상이 두드러지게 포착된다. 동일한 운자를 활용해 여행시를 창작한 정황이 확인되며, 次韻과 聯句 형식의 작품이 다수 보인다. 그에 따라 1697년 여행에 임한 三使는 한시라는 텍스트를 빌려 대화를 시도했다고 판단된다. 운자 운용 양상을 시제, 형식, 수량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최석정 『明谷集』 수록 여행시			송상기의 『玉吾齋集』 수록 여행시			최규서의 『良齋集』 수록 여행시		
	제목	운자	형식/수량	제목	운자	형식/수량	제목	운자	형식/수량
1	次書狀太虛樓韻	차운	7언율시/1수	太虛樓	원운	7언율시/1수	太虛樓次書狀韻	차운	7언율시/1수

12)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十載重持節, 當年左設弧。生爲大男子, 志不在妻孥。”

2				途中遇小雨	원운	7언절구/1수	生陽館中 和次書狀 遇小雨韻	차운	7언절구/1수
3	安定館次書 狀韻	차운	5언율시/1수	安定館書奉 副使	원운	5언율시/1수			
4	肅寧館偶吟	원운	7언율시/1수	次正使肅寧 館韻	차운	7언율시/1수	奉次正使 肅寧館肅 川韻	차운	7언율시/1수
5	百祥樓	원운	7언율시/1수				郭山客舍 奉次正使 韻	차운	7언율시/1수
6				新安館錄奉 副使	원운	5언율시/1수	又次書狀 韻	차운	5언율시/1수
7	用前韻奉調 行臺	원운	5언율시/1수	次正使韻以 自解	차운	5언율시/1수			
8	倚劍亭	원운	5언율시/1수				又奉次正 使韻	차운	5언율시/1수
9	林畔客館逢 李御史季章 次壁上韻	차운	7언율시/1수	次倚劍亭板 上韻	차운	7언율시/1수	倚劍亭次 板上韻	차운	7언율시/1수
10	林畔途中	원운	7언율시/1수				車輦館奉 次正使韻	차운	7언율시/1수
11				良策途中	원운	7언율시/1수	龍灣途中 次書狀韻	차운	7언율시/1수
12	鴨江舟中作 屬灣尹柳君 休以復	원운	7언율시/1수	次正使鴨江 韻	차운	7언율시/1수			
13	鳳凰城六首	원운	7언율시/6수	鳳城次正使 韻	차운	7언율시/4수			
14	松站途中	원운	7언율시/1수	松站次正使 韻	차운	7언율시/3수			
15	八渡途中	동운	5언율시/1수	八渡河途中	동운	5언율시/1수			
16	連山關	동운	7언율시/1수	通遠堡	동운	7언율시/1수			
17	遼陽	원운	5언율시/1수	遼陽 次正使韻	차운	5언율시/1수			
18	遼陽食櫻瓜	동운	7언율시/1수	遼陽食櫻瓜	동운	7언율시/1수			
19	遼陽用前韻	원운	7언율시/1수	華表柱 次正使前韻	차운	7언율시/1수			
20	白塔堡途中 逢寧陵忌辰 是日入藩	차운	5언율시/1수				白塔堡途 中逢寧陵 忌辰有感 是日入藩	원운	5언율시/1수
21	瀋陽有感	동운	7언율시/1수	瀋陽有感	원운	7언율시/1수	次韻書狀 瀋陽有感	차운	7언율시/1수
22	瀋陽遇端午	동운	7언율시/2수	瀋陽遇端午	동운	7언율시/3수			

	二首								
23				廣寧有感	원운	7언율시/1수	次韻書狀廣寧有感	차운	7언율시/1수
24				小凌河韻	원운	5언율시/1수	次書狀小凌河韻	차운	5언율시/1수
25	松山	동운	5언율시/1수	松山	원운	5언율시/1수	次書狀松山韻	차운	5언율시/1수
26	杏山	동운	5언율시/1수	杏山	원운	5언율시/1수	次書狀杏山韻	차운	5언율시/1수
27				撫寧縣	원운	5언율시/1수	次書狀撫寧縣韻	차운	5언율시/1수
28	貞女祠次壁上王致中韻	차운	7언율시/2수	貞女祠次壁上王致中韻	차운	7언율시/1수	貞女祠次壁上王致中韻	차운	7언율시/1수
29	山海關	원운	7언율시/1수	山海關	동운	7언율시/1수	奉次正使山海關韻	차운	7언율시/1수
30				望夫石	원운	7언절구/1수	次書狀望夫石韻	차운	7언절구/1수
31				永平途中	원운	5언율시/1수	次書狀永平途中韻	차운	5언율시/1수
32				玉田途中	원운	7언절구/1수	次書狀玉田途中韻	차운	7언절구/1수
33				薊州途中	원운	7언율시/1수	次書狀薊州途中韻	차운	7언율시/1수
34				漁陽	원운	7언절구/2수	次書狀漁陽韻	차운	7언절구/2수
35							次書狀彩亭橋韻	차운	7언절구/1수
36				滹沱河	원운	7언절구/1수	次書狀滹沱河韻	차운	7언절구/1수
37				通州	원운	7언율시/1수	次書狀通州韻	차운	7언율시/1수
38				燕都感懷	원운	7언율시/8수	燕都感懷次書狀韻	차운	7언율시/1수
39							次書狀清節祠韻	차운	7언율시/1수
40	榛子店	원운	7언율시/1수	榛子店次上使韻	차운	7언율시/1수			
41	通州二首	원운	7언율시/2수	通州次上使韻	차운	7언율시/1수			
42	和玉齋燕京感懷八首	화운	7언율시/8수	燕京感懷	화운	7언율시/8수			
43	北征聯句	백운	5언절구/50수	北征聯句百韻	백운	5언절구/50수			
	24제 68수			24제 87수			28제 29수		

표2. 三使의 운자 활용 양상 정리표

三使의 운자 운용 양상을 정리해보면, 최석정은 24제 68수, 송상기는 24제 87수, 최규서는 28제 29수의 작품을 次韻, 百韻聯句, 同韻, 和韻 형식으로 창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율로 환산했을 때 최석정은 50%, 송상기는 65%, 최규서는 63%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1697년 연행시의 운자 활용 양상을 세분화하여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 포착되는 양상은 三使와의 次韻詩이다. 이 유형은 여타 연행록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나, 전체 작품 수량 대비 三使와의 차운시 비중이 이처럼 폭발적인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같은 장소에 당도하여 한명이 감회를 읊고 다른 이가 그 시에 차운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공간적 담론의 공유 양상이 포착되므로 3장 1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발견되는 유형은 聯句형식에 포섭되는 百韻詩이다. 최석정과 송상기는 5언 절구 50수를 함께 창작했다. 연구는 시상의 유기적 흐름을 의식할 수 밖에 없으며 시상의 조화를 생각하고 창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제약이 따르는 방식이다. 그에 따라 3장 2절에서는 시 문면에 표출된 주제의 유기적 운용 및 담론 공유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확인되는 유형은 특정 장소에 당도하여 그곳에 남아있는 시를 보고 차운한 경우다. 정자 시판에 기록된 시에 차운한 것과 사당에 남은 다른 문인의 작품에 차운한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표 9번의 <林畔客館逢李御史季章次壁上韻>, <次倚劍亭板上韻>, <倚劍亭次板上韻> 작품과 28번의 <貞女祠次碑上王致中韻>, <貞女祠次壁上王致中韻>, <貞女祠次壁上王致中韻> 작품이 해당된다. 三使 연행시의 특징적 면모라고 보기에는 수량적으로 적은 양상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차지하기로 한다.

Ⅲ.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 양상

1. 次韻詩에 드러난 공간 담론의 공유

형식적으로 차운시는 압운한 글자의 순서까지 완벽히 일치시켜야 하므로 用韻, 依韻에 비해 제약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작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7년 연행에 임한 三使는 차운을 주된 방식으로 사용해 연행시를 창작했다. 이들이 차운시 창작에 경도된 이유를 유추해보면 시적 역량의 발현, 지적 유희 수단으로의 활용일 수도 있으나¹³⁾ 가장 큰 특징은 상호 교류 수단으로써의 활용이다. 차운시는 기본적으로 원운시 작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적 대화의 일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연행 길에서는 일반적인 화답 형식의 차운시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동일 공간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1697년 연행에 임한 三使는 특정 장소에 당도해 같은 광경을 목도한 후 공간 안에서 느끼는 심회를 제각기 표출하면서도 큰 틀만을 공유한 양상을 보인다. 차운시의 작자는 원운시의 형식적 틀과 전체적인 의경을 기반으로 하되 자신이 표출하고 싶은 미시적 주제를 부가하기 때문이다.¹⁴⁾ 이 밖에도 三使는 차운시를 활용해 개인적 감정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는 주로 행역의 고단함, 환조 욕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단편적인 감정들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1697년 三使 연행시의 가장 특징적인 상호교류성 양상을 고찰하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간적 담론 공유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13) 강민호, 『押韻의 미학으로 본 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 元白과 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72집, 2012, p.60.

14) 신은경, 『次韻詩의 상호텍스트적 성격 -尹善道の 시를 대상으로-』, 『東洋學』 67집, 2017, p.6.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공간은 심양이다. 병자호란 이후 이들이 목도한 심양은 鳳林大君, 昭顯世子 그리고 金尙憲(1570~1652), 崔鳴吉(1586~1647)을 제외하고 언급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¹⁵⁾ 따라서 1697년 연행에서의 심양은 기본적으로 효종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¹⁶⁾ 김상헌의 외증손인 송상기, 최명길의 손자인 최석정이 함께 마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김상헌은 척화 행적이 문제시되어 1640년 청나라에 압송되어 구금되었고, 최명길은 명나라와 비밀리에 관계를 맺은 것이 탄로나 1642년 국가적 책임을 지고 청에 억류된 인물이다.¹⁷⁾ 김상헌은 주자학적 이념에 입각해 의리를 강조했고, 최명길은 양명학적 사고를 견비해 현실 문제 해결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방법적 측면에서 노선을 달리한 듯 보인다.¹⁸⁾ 그러나 결국 이는 방법적 측면에서 權道를 중시했는가 經道를 지켰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뿐 본질적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김상헌은 權道는 현자도 그르칠 수 있으나 經道를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긋나지 않는다고¹⁹⁾ 판단해 경도를 중시했으나, 최명길은 끓는 물과 얼음은 다 같은 물이며 갓옷과 갈옷도 다 옷임을 말하여 행동이 다를 뿐 마음은 같음을²⁰⁾ 수창시를 통해 드러낸 바 있기

15) 『明谷集』 5권, 『蕉回錄』, <北征聯句>, “潘衛眞天府, 雄關舊挹婁. 龍潛聖王困, 羝乳老臣拘.”

16) 『玉吾齋集』 2권, <白塔堡 遇寧陵忌辰 次副使韻>, “不謂崩天日, 今當到潘時. 還將遼塞淚, 重作杞人悲. 大業嗟中失, 單車尙北馳. 昔年淹恤地, 遺跡恨難知.”

17) 이정원, 『暹川 崔鳴吉 漢詩 研究 : 『북비수창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33, 참고

18) 심양 억류 당시 이들이 수창한 『北扉酬唱錄』을 통해 현실 대응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 『淸陰集』 12권, 『雪窖後集』, <次講經權有感韻>, “成敗關天運, 須看義與歸. 雖然反夙莫, 詎可倒裳衣. 權或賢猶誤, 經應衆莫違. 寄言明理士, 造次慎衡機.”

20) 『暹川先生集』 3권, 『北扉酬唱錄』, <用前韻講經權>, “靜處觀群動, 眞成爛漫歸. 湯水俱是水, 裘葛莫非衣. 事或隨時別, 心寧與道違. 君能悟斯理, 語默各天機.”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척화와 주화의 형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최종 목표는 같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697년 여행에 임한 김상헌의 외증손인 송상기, 최명길의 손자인 최석정, 그리고 최규서는 자신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면서도 역사적 사연을 안고 있는 공간인 심양에 당도해 과거 속에 현존하는 인물들을 반추한다.

(1)

당시의 석실 노선생	當年石室老先生
부절 잡은 한나라의 소무 같았고	握節還同漢子卿
만고에 춘추 정신으로 대의 세웠으니	萬古春秋扶大義
한때 모든 나라에서 높은 이름 우러렸네	一時夏夷仰高名
앞 강물은 아직도 바다로 흘러가건만	朝宗尚有前江水
글 읽는 소리 옛 성에서 찾기 어렵네	絃誦難尋舊日城
부끄럽네, 후손이 더러운 것 감내하면서	慚愧後孫甘洪涖
빈의 폐백 높이 들고 연경으로 가고 있으니 ²¹⁾	手擎匱幣走燕京

(2)

심양에 들어서자 온갖 감회가 일어나니	纔入瀋陽百感生
신정에서 감읍했던 진나라 공경 같네	新亭感泣晉公卿
효종대왕 8년 동안 머물며 근심하셨고	先王淹恤八年地
석실 노선생 천년동안 인륜으로 이름났네	石老綱常千古名
일월은 정축약조시절로 거듭 돌아 온 듯 하고	日月重回丁丑歲
산하는 아직도 혁련성에 둘러싸여있네	山河猶擁赫連城
하늘 끝 눈길 가는 곳은 오랑개 먼지로 어두컴컴하니	天涯極目腥塵暗
어느 곳에서 신주의 황제 도성을 찾을 것인가 ²²⁾	何處神州覓帝京

21) 『玉吾齋集』 2권, <瀋陽有感>.

이고, 6구는 청나라가 집권한 이후 더 이상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7~8구는 1697년 연행에 임한 자신의 상황을 읊은 것으로 ‘慚愧’라는 단어에 그의 심정이 응축되어있다. 외증조 김상헌은 심양에 갇혀서도 절의를 지켰으나, 자신은 연행에 임할 수 밖에 없음을 괴로워한 것이다.

다음으로 최규서의 차운시 (2)를 살펴보면, 최규서가 송상기의 작품인 (1)의 시상을 가져오면서도 일부 변용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구는 최규서가 심양에 당도한 감회를 토로한 부분으로 자신의 심정을 쯔나라 공경에 투영시켰다. 西晉 말년 中原이 함락되어 新亭에서 공경들이 통곡하자 丞相 王導가 “함께 힘을 합쳐 神州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하여 초나라 죄수들처럼 서로 마주 보며 눈물만 흘리는가.(何至作楚囚相對)”라고 꾸짖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3~4구는 심양에서 효종대왕과 김상헌을 떠올린 것으로 효종대왕, 김상헌, 최명길의 일화가 심양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심양이 역사 공간으로 변모되었음을 볼 수 있다. 5~6구에 이르면 1637년 청나라와 정축약조를 맺을 당시 그 때의 감회가 되살아났음을 알 수 있다. 7구에서는 오랑캐로 대변되는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했음을 언급하는 동시에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담아냈다. 8구는 앞서 1~2구에서 언급한 神州를 말해 은연중에 명나라 황제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석정의 차운시인 작품(3)을 보면 송상기의 원운시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면서도, 최석정이 언급하고 싶었던 최명길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구를 보면 최명길, 김상헌이 함께했던 北扉라는 공간을 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구에서는 최명길, 김상헌이 각기 따랐던 權道와 經道에 관한 최석정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최석정은 조부 최명길이 명나라를 존송하는 의리를 잊지 않았으

며, 두 원로의 權道와 經道가 각각 모두 국가를 위한 것이었음을 상소문에서 밝힌 바 있다.²⁴⁾ 4구는 최명길과 김상헌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람들에게 절의로 존경받았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²⁵⁾ 5~6구는 풀, 나무, 풍연으로 표상되는 자연물들은 예전과 같은 모습인 반면 심양관은 폐허가 되어 황량한 성만 남았음을 포착한 것이다. 7~8구는 최명길과 김상헌으로 대변되는 선조의 절개와 행적을 회상하며, 청나라로 사신가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가미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공간은 만리장성 동쪽 끝 지점에 위치한 관문인 山海關이다. 산해관은 명나라 때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했으나, 청나라에게 함락된 후 명칭교체라는 상징성을 띤 공간으로 변모한 곳이다. 그에 따라 연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산해관은 사신들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송상기, 최석정, 최규서가 산해관에서 명칭 교체의 현장을 떠올리고 명나라를 회고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한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북에서 뻗어온 산세에 장엄한 연경

北來山勢壯幽燕

24) 『明谷集』 17권, 『疏筭』, <因宋婺源疏 辨誣辭職 仍陳先祖事蹟疏 丙戌>, “況於顛沛造次之際, 不忘尊周之義, 因是而備嘗危辱, 跼死靡悔. 至蒙崇禎聖天子惻念褒諭之典, 則其所樹立, 又何如也. 其在燕獄也, 故相臣李敬輿有詩曰, “二老經權各爲公, 擎天大節濟時功. 如今爛熳同歸地, 俱是南冠白首翁.” 蓋並指臣祖及故相臣金尙憲也. 夫既許以濟時之功, 而又美其同歸於南冠, 則斯蓋紀實歎賞之詞, 而足爲後代之公案矣.”

25) 『明谷集』 17권, 『疏筭』, <因宋婺源疏 辨誣辭職 仍陳先祖事蹟疏 丙戌>, “在囚也, 中朝人張文衡謂我人曰, “你國二閣老、一尙書, 以事關天朝之故, 方被繫北獄, 東方節義, 令人起敬. 이 내용을 통해 최명길이 구금되어 있었을 당시 명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에 보이는 푸른 바다는 진실로 드넓네	南見滄溟正浩然
만리장성 진나라 2세 때 성대하게 축성되었는데	漫築長城秦二世
한나라 중천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탄식한 이 누구인가	誰嘯炎火漢中天
진나라 이사의 글씨 성문 현관에 남아있고	李斯遺墨門楣在
명나라 서달의 큰 법도 성가귀에 전해지네	徐達弘規堞櫓傳
예로부터 멀리 사신 와 웅장한 필력 갖추었으니	自昔遠游雄筆力
관문 너머서의 시문을 먼저 걱정하지 않으리 ²⁶⁾	未應先怯度關篇

(2)

요동 땅 지나 또 연경으로 들어가면서	領略全遼又入燕
진나라 관문 한번 바라보니 마음이 아득해지는데	秦關一望意悠然
땅 끝 바다에는 천 층의 물결 일고	地窮滄海千層浪
만리장성은 임조에서 만 리 하늘에 닿았네	城自臨洮萬里天
우주의 물 위 거품 모두 얼마나 허망한가	宇宙浮漚凡幾幻
산하에서 사신으로 떠돌며 번갈아 흥망성쇠 전해 듣고	山河逆旅遞相傳
서생이 공연히 시절을 상심하여 눈물 흘리니	書生空有傷時淚
무릎을 치며 시를 지어 옛일을 슬퍼하네 ²⁷⁾	擊節吟成弔古篇

(3)

동으로 요동의 발해와 북으로 연경 끝까지	東經遼渤北窮燕
갑자기 오늘 아침 시야가 확 트이네	忽覺今朝眼豁然
만 마리 말 달리는 듯 한 산은 변방에 이어지고	萬馬奔馳山接塞
여섯 마리 자라 뛰어오르는 듯 한 바다는 하늘에 닿아있는데	六鰲騰蹙海連天
방비 보았으나 끝내 관문을 빼앗겼고	添防竟恨重關失
맥 끊겼으나 겨우 진나라 2세에 전해졌었지	絕脈纔看二世傳
오직 오가며 옛날 회상하는 나그네만이	唯有往來懷舊客

26) 『明谷集』 5권, 『蔗回錄』, <山海關>.

27) 『良齋集』 1권, <奉次正使山海關韻>.

멀리 노닐면서 문장으로 남기네²⁸⁾

壯遊輸入紀行篇

위 작품은 모두 산해관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창작한 것으로 (1)에 해당하는 작품은 최석정의 원운시, (2)는 최규서의 차운시, (3)은 송상기의 차운시이다.

최석정의 작품인 (1)에 해당하는 시는 산해관을 마주한 후 만리장성이 축성된 진나라에서부터 명나라까지의 일을 회고하는데 집중한 작품이다. 1~2구는 산해관 북쪽과 남쪽에 펼쳐진 산세와 바다 전경의 웅장함을 읊은 부분이다. 3~4구는 진나라에서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만리장성이 지속적으로 축성되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냈음을 드러낸 것이다. 만리장성이 군사적 경계로 제 역할을 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았을 때 최석정은 산해관을 華夷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5~6구에서는 현판에 적힌 진나라 李斯의 글씨를 언급하고, 명나라에 이르러 徐達이 增修했음을 말했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진나라와 명나라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최규서의 차운시 (2)를 살펴보면, 최규서가 최석정의 작품인 (1)의 시상을 가져오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켜 변용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석정이 진나라에서부터 명나라까지 이어온 만리장성과 산해관을 객관적 시선으로 읊었다면, 최규서는 산해관을 마주한 뒤 느낀 서글픈 심정을 시에 담아냈다. 1~2구에는 요동 땅에서부터 연경으로 향하는 연행 경로가 드러나며, 최규서가 진나라 관문으로 표현된 산해관을 마주하며 온갖 감회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3~4구는 산해관에서 마주한 장대한 광경을 그려낸 것으로 임조에서 산해관까지 이르는 장성인 만리장성이 하늘까

28) 『玉吾齋集』 2권, <山海關>.

지 달을 정도로 광대함을 말한 것이다. 5~6구에 이르면 산해관에서의 감회가 흥망성쇠에서 비롯된 인생무상에 대한 감정으로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해관이 명청교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신들에게 산해관은 정통의 우상을 잃은 아픔이자 회구의 대상이²⁹⁾ 되었을 것이다. 7~8구에 이르면 감정이 확장되어 깊은 슬픔으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송상기의 차운시인 (3)작품을 보면 광대한 산해관의 변함없는 모습과 명청교체 이후의 산해관이 대비적으로 드러난다. 1~4구는 산해관에서 마주한 광활한 풍경을 읊은 것이다. 산은 만 마리 말이 달리는 듯하고 바다는 자라가 뛰어 오르는 듯 하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5~6구는 명나라 서달이 만리장성을 증축해 방어하고자 했으나 청나라에게 관문을 빼앗겼음을 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산해관이 華夷의 경계라는 의미를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³⁰⁾ 또한 진나라 진시황이 북방 오랑캐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으나, 결국 부질없이 다음 왕인 胡亥 때 멸망했음을 언급해 맥이 끊겨 겨우 지금까지 전해졌음을 밝혔다. 7~8구에 이르면 송상기는 사라져버린 과거를 떠올리며 회상에 잠긴 자신의 모습을 시 안에 그려 넣었다. 명청교체 이후 사신들이 마주한 산해관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의미를 상실했기에 회상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있듯 연행은 동일 공간 공유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三使 사이에 더욱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다고 논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심양과 산해관을 읊은 원운시와 차

29) 김철·황효영, 『명·청시기 조선 사신들의 대중국 인식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39집, 2015, p.64.

30) 『玉吾齋集』 2권, <北征聯句百韻>, “禦暴功思魏, 開門策笑吳. 藩籬輕毀撤, 豺虎遂吞屠.”

운시를 추출해 그들이 논한 역사적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공간적 담론 공유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百韻聯句詩에 포출된 주제의 유기적 운용

이 장에서는 최석정과 송상기의 <北征聯句> 百韻詩를 대상으로 삼아 그 안에 담긴 담론과 주제 공유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운의 최대 효과는 제각기 흩어진 소리들의 연계성을 찾아 일관되게 하여 하나의 완전한 곡조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³¹⁾ 이러한 효능을 극대화시켜 활용한 백운시는 운율뿐만 아니라 주제적 측면에서도 통일감을 추구한다. <北征聯句> 백운시 5언절구 50수는 최석정과 송상기가 한 수씩 번갈아 창작하는 방식이며, 유기적인 주제 운용 양상 및 주제 교류라는 특징이 드러난다. 따라서 선차적으로 50수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제를 분석해 제시하고, 이동 경로까지 표기해 공간 이동 추이를 따져보고자 한다.

순번	주제	공간	저자
1	사신에 임하는 태도		최석정
2	正使, 書狀官, 副使에 대한 소개 및 사신에 임하는 태도		송상기
3	연행에 함께 正官에 대한 소개 및 노정 거리 개관		최석정
4	전별 자리에서의 감회	임진강 화석정, 송도 만월대	송상기
5	공간에서 파생된 감회 및 이롭다움 예찬	옥류천, 황주 태허루, 평양, 대동강	최석정
6	본격적인 사행길의 시작을 알림	살수(평안도 청천강), 용만(평안도 의주)	송상기
7	이틀 밤 노숙 한 후의 고초 토로		최석정
8	동팔참에 당도한 감회 및 위나라 주허, 연나라 태자 단에 대한 회고	동팔참	송상기
9	십양에서 효정대왕, 김상헌, 최명길의 고난을 떠올림	십양	최석정

31) 주광잠 저·정상홍 역, 『詩論』, 동문선, 1991, p.264.

10	청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일이 없음을 언급하며 약소국의 처지임을 토로		송상기
11	곽조서를 만나러 갔다가 그의 아들 궤원을 만남	거류하, 거류하참	최석정
12	연행길에서 의무려산을 조망	대항기보, 소항기보, 대백기보, 소백기보, 일관문, 의무려산	송상기
13	의무려산에서 옥녀분과 도화등을 떠올리며 조대수 패루를 바라본 감회	의무려산, 영원(조대수 패루)	최석정
14	조대수 진영인 금주를 바라보고 명말 장수 원승환을 영원성에서 떠올림	금주(금주성), 영원성	송상기
15	만리장성과 진시황에 대한 아쉬움 토로	만리장성	최석정
16	위국공 서달이 만리장성을 다시 쌓은 것 언급, 오삼계의 계획 비웃음	만리장성	송상기
17	오랑캐 풍으로 변모한 모습 비판		최석정
18	이광과 이목의 일화 및 이제묘와 전설 속옥전 언급	영평(이제묘)	송상기
19	청나라 풍속		최석정
20	청나라 불교 및 통주 노하의 부유함 포착	계주(독락사), 통주(노하)	송상기
21	북경에 도착한 경위와 당시 계절	북경, 동야묘, 옥하관	최석정
22	북경에 도착한 다음날 홍려시에 가서 조희한 후 부정적 감회 표출	북경, 예부, 홍려시	송상기
23	계를 올렸으나 마찰이 발생했음을 토로	예부	최석정
24	청나라가 세자 책봉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기쁨 표출		송상기
25	청나라가 세자 책봉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기쁨 표출		최석정
26	사신의 괴로움 토로		송상기
27	청나라의 풍습(청나라 미술사 포착)		최석정
28	청나라의 풍습(미술사를 보고 잠시 웃었으나 여전히 청나라에 대해 부정적임을 표출)		송상기
29	청나라의 풍습(청나라 가게, 거리의 화려함 포착. 예를 저버리고 문과 선비를 천시했다고 논함)		최석정
30	청나라의 풍습(침상의 장식, 술, 향기로운 차, 초나라 춤, 오나라 노래)		송상기
31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견해 표출		최석정
32	명나라 멸망 회고와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견해 표출		송상기
33	명나라 멸망 회고와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견해 표출		최석정
34	고향과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송상기
35	돌아가기를 재촉함		최석정
36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행길의 고달픔		송상기
37	서장관 송상기의 재능과 풍류 예찬		최석정

38	정사 최석정의 재능과 문장 예찬		송상기
39	노쇠함을 한탄		최석정
40	사신으로 인해 흥금이 단단해지고 시의 운치가 깊어졌음을 말함		송상기
41	부사 최규서의 성품과 재능 예찬		최석정
42	삼사에 대한 애뜻함 표출		송상기
43	삼사와의 우정 표출		최석정
44	입금의 은혜		송상기
45	사신 임무를 무사히 마쳤음을 논함		최석정
46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과 벗하는 삶 소망		송상기
47	이번 연행이 10년 만에 떠난 2차 연행임을 드러냄		최석정
48	계절의 변화를 언급해 환조 했음을 밝힘		송상기
49	서장관 송상기의 문재와 위엄 예찬, 부사 최규서가 연구를 함께 짓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함		최석정
50	연구를 함께 짓지 않은 부사 최규서에게 백운 연구사가 옛 사람을 모방해 지은 시보다 나으므로 보고 비웃지 말라고 말함		송상기

표3. <北征聯句>의 담론 공유 양상 정리표

위 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듯 <北征聯句> 百韻詩는 내용적 측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개별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이동 경로에 따라 순차적 면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北征聯句>는 두 명의 작가가 자신의 시각을 반영하여 청나라의 다양한 양상을 조망하려 한 작품이므로 연속성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 속의 연속성을 추구한 작품으로 파악된다. 통일성을 증폭시키면서도 단조로움을 축소시키는 미감을 추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³²⁾

그 밖에 이 작품이 지닌 독특한 점은 三使 중에서 최석정과 송상기만이 <北征聯句>를 짓게 된 경위다. 최석정과 송상기가 최규서에게도 연구를 함께 짓자고 제안했으나, 최규서가 여러 이유를 들어 長律과 聯句를 짓지

32) 강민호, 『押韻의 미학으로 본 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 元白과 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72집, 2012, p.54.

않겠다고³³⁾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최석정은 최규서를 양주처럼 자기를 위하는 학문의 최고 경지라고 비판했고,³⁴⁾ 송상기는 연구시를 비웃지 말라고 경고했는데,³⁵⁾ <北征聯句> 49번째 시, 50번째 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들은 최석정의 <北征聯句> 13번째 시와 송상기의 <北征聯句> 14번째 작품이다. 명나라 말 장수들에 대한 거시적 담론 공유 양상이 포착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寧遠衛에 있는 祖大壽(미상~1656) 형제 패루는 명청교체를 떠올리는 주요 장소로 자리 잡게 되면서 18세기 초기 여행록에 새롭게 추가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다.³⁶⁾ <北征聯句>를 통해 보았을 때 17세기 말부터 점차 영원위와 조대수 패루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두 작품이 내용적 측면에서 유기성을 가짐을 볼 수 있다.

(1)

옥녀분 맑고 깨끗한데	玉女盆清澈
도화동도 실제 있었을지	桃花洞有無
조대수 패루는 완연하게 남았는데	門樓宛猶在
원숭환 너를 어찌 탓하겠는가 ³⁷⁾	督帥爾何誅

33) 『玉吾齋集』 2권, <北征聯句百韻>, “此令, 以長律聯句爲多事不肯. 僕笑謂爲我之學上關. 用崔顯事.”

34)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自應輕李白, 無乃學揚朱.”

35)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和璧嫌彈雀, 祥金恥躍爐. 傍觀休笑拙, 亦勝畫葫蘆.”

36) 김현미, 『18세기 여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53, 참조

37)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13번째 수.

(2)

금주성에서 항복한 단을 보니	錦堞降壇見
영성에 전사들의 뼈가 말랐네	寧城戰骨枯
근심스런 구름은 부질없이 참담해 보이는데	愁雲空慘淡
원숭환의 원통한 핏자국이 아직도 아른거리네 ³⁸⁾	冤血尙模糊

최석정의 작품(1)을 살펴보면, 1~2구에는 의무려산 위에 자리한다고 전해지는 玉女盆과 桃花洞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의문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4구는 祖大壽(미상~1656) 패루를 마주하고 袁崇煥(1584~1630) 장수의 일화를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최석정은 명나라 원숭환 장수가 청나라 태종을 막아내고자 힘썼기에 명청교체가 그의 탓이 아님을 말하는 동시에 끝내 청나라에 항복한 조대수의 패루가 아직도 화려하게 남아 있음을 비판적으로 드러냈다.

송상기의 작품(2) 역시 조대수와 원숭환에 대한 담론을 이어갔음을 볼 수 있는데, 1~2구는 조대수가 진영을 설치했던 금주성에서 명나라 말기 영원위를 지키다 죽은 이들을 떠올린 것이다. 3구에는 명청교체에 대한 송상기의 심정이 ‘愁雲’이라는 경물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4구는 원숭환에 대한 내용으로 그의 원통한 핏자국이 아직도 아른거린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명나라를 지키지 못한 조대수를 은연중에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 있듯 최석정과 송상기 작품에 등장하는 조대수는 원숭환과 대비되면서 명나라를 지키지 못한 인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석정과 송상기는 동일한 장소에서 조대수와 원숭환을 회고하며 명청교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유한 것이다. 조대수와 원숭환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18세기 연행록에 이르러 더욱 심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38) 『明谷集』 5권, 『蕉回錄』, <北征聯句>, 14번째 수.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들은 최석정의 <北征聯句> 27번째 시와 송상기의 <北征聯句> 28번째 작품으로 청나라의 특이한 볼거리를 마주한 이들의 답론 공유 양상이 드러난다. 작자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공간에서 동일 대상을 목도해 통일감 있게 시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유기성을 지닌다.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17세기까지는 존명배척 사상이 짙은 시기라 청나라의 화려함을 말하면서도 적대시하는 감정이 지배적이었음을 이들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北征聯句> 29번째, 30번째 작품에서도 청나라 거리의 화려함과 풍습을 시에 담았으나, 큰 틀에서 존명배척 의식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양상이다.

(1)

마술사는 여러 사람의 눈을 속이고	幻子瞞群目
생긴 모양마다 귀신같은데	形形類鬼符
폭죽에 온갖 재미 숨졌다가	燈籠藏百戲
가지가지 새 모양 만들어 내네 ⁴⁰⁾	種種出新模

(2)

특이한 볼거리에 잠시 웃음 지었지만	異觀聊相噓
복잡한 속내에 끝내 기쁘지 않네	煩襟竟未愉
소반의 생선에는 파리가 득실대고	盤腥集蠅螞
푸줏간 고기에는 들오리 섞여있네 ⁴¹⁾	庖肉雜鴛鳧

39)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p.53, 참조. 이정신(1712)은 영녕사와 조대수 묘를 둘러보면서 매우 길게 조대수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으며, 한덕후(1732) 역시 영원위에서 원숭환의 일화를 소개한 후 원숭환이 잘 했는데도 형제가 뒤집히지 못한 것에 대해 통분 할 만하다고 이야기하며 조대수, 조대락 형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토로한 바 있다.

40)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27번째 수.

41)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28번째 수.

작품(1)을 살펴보면, 최석정이 청나라의 마술사의 모습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이전까지 청나라의 마술을 다룬 연행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또한 조선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마술공연이 금지되었기에 마술사의 모습은 상당히 흥미로운 문화였을 것이다.⁴²⁾ 그에 따라 최석정의 작품에는 사람의 눈을 속이며 갖은 재미를 선사하는 마술사에 대한 문화적 놀라움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송상기가 지은 작품(2)를 보면, 최석정과 송상기가 같은 광경을 목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상기는 마술을 있는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청나라로 변한 시대적 갈등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나라를 이적시하면서도 그 나라가 이룩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문화적 번성 앞에서 느꼈던 깊은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존명배척 의식이 강했던 17세기에 행해진 연행이라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사신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교류성 양상 혹은 발전적 면모에 대한 탐구 양상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세 번째로 살펴볼 작품들은 최석정의 <北征聯句> 32번째 시와 송상기의 <北征聯句> 33번째 작품인데,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대칭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명나라가 청나라가로 교체됨을 받아들이지 못해 부정적 심회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 보인다.

(1)

성궐에는 낙타 가득하고	城闕群駝滿
관아에는 풀이 무성하네	官衙衆草燕
하늘이 이와 같이 취했으니	皇天如此醉

42) 임준철, 『幻戲詩 통해 본 청대 북경의 幻術 -金進洙의 <幻戲宴> 二十八首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0권, 2011, p.217.

43) 이혜순, 『姜瑋의 燕行詩에 나타난 시대정신』, 『이화어문논집』 15집, 1997, p.237.

시대의 운수는 어찌 이리도 더러운가 ⁴⁴⁾	世運一何汙
(2)	
여기저기 요새를 만들어 놓았으나	謾設金湯地
허망하게 육지와 바다 열었으니	虛開陸海區
처음에는 도적이 생겨났지만	始焉生闖賊
결국에는 선우에게 빼앗겼구나 ⁴⁵⁾	終乃付單于

최석정의 작품 (1)은 낙타가 가득한 성곽과 풀이 무성한 관아를 살핀 후 청나라가 들어섰음을 직접적으로 인지함에 따라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다. 시대의 운수가 더러워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것이라고까지 직접적으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랑캐의 지배 자체를 운수의 더러움으로 변용시켜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송상기의 작품 (2) 역시 최석정의 작품과 연계성을 지닌다. 시대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양상인데, 처음에는 李自成(1605~1645)이 난리를 일으켰으나 결국에는 청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송상기는 명나라를 그리워하며 송명배척 의식이 강했던 인물이기⁴⁶⁾ 명청 교체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여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百韻聯句詩를 중심으로 주제의 유기적 운용을 통한 담론의 소통 양상을 확인하였다. 실질적 작품 분석을 통해 주제 운용 측면에서 개별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연행시의 담론 공유 양태를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17세기 연행록이 가지는 특징을 추출해 그 의미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44)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32번째 수.

45) 『明谷集』 5권, 『蔗回錄』, <北征聯句>, 33번째 수.

46) 『玉吾齋集』 2권, <燕京感懷>. 송상기는 <燕京感懷> 8수를 지었는데, 1~5수는 모두 명나라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접철되어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1697년 당시 연행에 입했던 최석정, 송상기, 최규서의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해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을 조명하고자 했다. 이는 三使가 남긴 次韻詩와 百韻聯句詩를 대화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시도였다. 그에 따라 미시적으로는 이들이 나눈 공간 담론, 주제의 유기적 운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거시적으로는 17세기 후반 연행에 입한 이들이 공유했던 특징적인 인식세계까지도 엿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첫 번째는 연행시 안에서 三使의 상호교류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교류성과 연관이 있는 기존 연구 성과를 확인해 보면, 일록 형식을 취하는 연행록의 경우에는 서술방식에서의 상호텍스트성⁴⁷⁾ 및 후대 사행록과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으며,⁴⁸⁾ 특정 시기 연행록의 형식적 특징과 변천 양상까지도 연구되었다.⁴⁹⁾ 그러나 시 형식으로 구성된 연행록 같은 경우에는 차운시를 통해 전대 연행록 수용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 시도만이 있는 실정이다.⁵⁰⁾ 앞서 시도된 연행시의 전대 연행록 수용·변이 양상이 수직적인 상호교류성에 관한 것이라면, 이 글에서

47)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거 혹은 동시대의 다른 텍스트들과의 연관관계 아래에서 의미작용이 완성됨을 뜻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말, 대화, 그리고 소설』,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p.235.

48)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의 글쓰기 방식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5집, 2000; 김영죽, 『연행 體驗 기록의 慣行과 그 매커니즘』, 『한문고전연구』 34권, 2017.

49)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50) 김묘정, 『姜銑의 『燕行錄』 연구』, 『한국문학연구』 50집, 2016.

논의한 三使 여행시의 교류 양상은 수평적인 상호교류성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더 나아가 특정 공간에 당도했을 때 전대의 역사적 일을 회고하여 담론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므로 수직적 상호교류성도 지니고 있다고 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상호교류성에 입각해 여행을 분석하는 것은 여행시의 글쓰기 양상을 밝히는 또 다른 작업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식의 틀을 발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이 되리라 여긴다.

두 번째는 三使의 여행시 연구를 통해 최석정, 최규서, 송상기의 인식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최석정과 송상기의 여행이 김상헌, 최명길과 연결되면서 이들의 관계망을 비롯해 주화와 척화에 관한 당대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인식의 틀을 일면 밝혔다고 사료된다. 최석정, 최규서 같은 경우에는 문학세계나 의식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글이 이들의 대청·대명 인식을 비롯해 인식세계를 밝히는 작은 기점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宋相琦, 『玉吾齋集』, 韓國文集叢刊 171, 民族文化推進黨, 1760.

崔錫鼎, 『明谷集』, 韓國文集叢刊 153·154, 民族文化推進黨, 1721.

崔奎瑞, 『良齋集』, 韓國文集叢刊 161, 民族文化推進黨, 미상.

송상기 저·김기 외 3 역, 『玉吾齋集』, 問津, 2013.

주광잠 저·정상홍 역, 『詩論』, 동문선, 1991.

줄리아 크리스테바, 『말, 대화, 그리고 소설』, 『마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강민호, 『押韻의 미학으로 본 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 元白과 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72집, 2012, pp.49-74.

김묘정, 『姜銑의 『燕行錄』 연구』, 『한국문학연구』 50집, 2016, pp.103-138.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의 글쓰기 방식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5집, 2000, pp.115-142.

김영죽, 『연행 體驗 기록의 慣行과 그 매커니즘』, 『한문고전연구』 34권, 2017, pp.265-304.

김 철·황효영, 『명·청시기 조선 사신들의 대중국 인식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39집, 2015, pp.29-68.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pp.1-203.

신은경, 『次韻詩의 상호텍스트적 성격 -尹善道の 시를 대상으로-』, 『東洋學』 67집, 2017, pp.1-20.

이정원, 『暹川 崔鳴吉 漢詩 研究 : 『북비수창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p.1-67.

이혜순, 『姜瑋의 燕行詩에 나타난 시대정신』, 『이화어문논집』 15집, 1997, pp.231-254.

임준철, 『幻戲詩 통해 본 청대 북경의 幻術 -金進洙의 <幻戲宴> 二十八首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0권, 2011, pp.215-248.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changeability of three Envoys' Traveling Poems
in 1967 Centered on Works of Choi Seok-jeong (崔錫鼎),
Song Sang-ki (宋相琦), and Choi Gwi-seo (崔奎瑞)

Kim, Myo-jung

This writing is a part of an attempt to illuminate the Interchangeability of three Envoys' Traveling Poems targeting the works of Choi Seok-jeong (崔錫鼎), Song Sang-ki(宋相琦), and Choi Gwi-seo(崔奎瑞) who participated in the three Envoys' trip in 1967. Accordingly, a few features of the trip in 1967 were examined in order. By surveying works of these three envoys, the poetry of the rhyme borrowed and phrase connecting poetry were identified more important quantitatively than the other travel writings.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review, the interchanging facet of the envoys' travel poems showed 2 aspects. The first one was a shared aspect of spatial discussion. In particular, this aspect was caught in the three envoys' poetry of the rhyme borrowed. Traveling carries the special nature in that it shares the same space. It was confirmed that more active dialogue took place between them. In addition, historical significance was revealed centered on Shenyang and Sanhaegwan. Through these works, interchanging aspect was surveyed. The second one was the communication aspect of discussion through organic management of the subject. Since the 100-rhythm-phrase-connecting-poetry (百韻聯句詩) was created by two persons in terms of management of the subject, individual works were confirmed to be connected organically. In addition, in the course of confirming the shared aspect of phrase-connecting poetry discussion, features contained in the 17th century' straveling writing was derived and its significance was discussed.

Key Word : Traveling, Traveling Poem, Choi Seok-jeong (崔錫鼎),
Song Sang-ki (宋相琦), Choi Gwi-seo (崔奎瑞), Interchangeability

김묘정

소속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자우편 : 88131momo@naver.com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